

◆ 政府 施策 ◆

電力機資材 國産化 購買促進 및 技術開發 支援對策 마련 - 상공부, 년도별 국산화 대상품목 예시등 추진 -

최근 세계시장이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 변화해 감에 따라 기술과 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제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전력기자재 국산화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전력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韓電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우리업계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다음은 전력기자재 구매 및 기술지원 현황과 이번에 수립된 전력기자재 국산화 구매촉진 및 기술개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機資材 國産化 · 購買促進 및 技術開發 支援對策

가. 機資材 國産化 및 購買 促進對策

- 1) 외자구매품목 List와 외자구매품목 중 앞으로 5년간의 「년도별 국산화 대상품목」을 예시
 -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통보하고 전기공업진흥회는 이를 각 업체에 배포
- 2) 업체의 기술개발능력 및 인력, 제조설비,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국산화 대상업체를 사전지정」
- 3) 업체에 기술개발비 지원 및 한전보유 기술 무상 제공
- 4) 국산개발제품에 대하여는 3년간 타제품에 우선하여 구매
- 5) 국산개발제품에 대한 기술개발비, 기술료등을 원가에 반영

나. 技術開發 支援對策 사항

- 1) 전력국이 수립중에 있는 「전력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종합계획」에 「한전이 중전기기업체에 매년 지원할 기술개발비」를 반영
- 2) 한전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 지원하였거나 향후 지원하여야 할 기술개발비(960억원) 중 업계에서 상환할 기술료(지원액의 50~60% 수준)는 전액 채투자하되 「기금관리 및 기술개발 운영관리 주체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로 함 (기금수납기관을 전기공업진흥회로 함)

한전의 設備投資 現況

1. 設備投資 實績 및 計劃

(單位 : 億圓)

區 分		'92	'93 (A)	'94 (B)	增減 (B-A)
發 電 設 備	水 火 力	21,194 (49.5%)	16,207 (34.9%)	15,867 (32.6%)	- 340
	原 子 力	8,115 (18.9%)	12,340 (26.6%)	14,025 (28.8%)	1,685
	設 備 補 強	1,018 (2.4%)	1,201 (2.6%)	1,086 (2.2%)	- 115
	計	30,327 (70.8%)	29,748 (64.1%)	30,979 (63.6%)	1,230
送 配 電 設 備	送 變 電	5,122 (12.0%)	5,980 (12.9%)	7,271 (14.9%)	1,291
	濟 州- 陸 地	545 (1.3%)	1,206 (2.6%)	172 (0.4%)	-1,034
	配 電	6,467 (15.1%)	8,727 (18.8%)	9,119 (18.7%)	392
	電 子 通 信	349 (0.8%)	779 (1.6%)	1,158 (2.4%)	379
	計	12,483 (29.2%)	16,693 (35.9%)	17,720 (36.4%)	1,027
合 計		42,810 (100%)	46,442 (100%)	48,699 (100%)	2,257

2. 技術開發 投資實績 및 計劃

	'92	'93	'94
－ 總 投資 規模 (億원)	1,543	2,293	2,558
－ 重電機器 投資 (億원)	169 (10.9%)	224 (9.8%)	300 (11.7%)

한전의 設備國産化 現況

發 電 設 備	送 電 設 備	變 電 設 備	配 電 設 備
69.5%	90%	89%	100%

- 註> 1. 發電設備 : 原子力 (69%), 火力 (86%), 水力 (73%), 複合 (34%)
 2. 送電設備 : 送電線 (100%), 鐵 塔 (100%), 其他 (20%) 애자 : 국산부
 3. 變電設備 : 變壓器 (100%), 遮斷器 (100%), 其他 (60%) 피뢰기 : 국산부

한전의 機資材 購買 現況

(單位 : 億원)

區 分	'92			'93		
	內 資	外 資	計	內 資	外 資	計
水 火 力 (중전기기)	5,743 42	940 -	6,683 422	5,553 237	1,267 -	6,820 237
原 子 力 (중전기기)	3,541 -	3,308 -	6,849 -	3,187 462	3,015 -	6,202 462
送 電 (중전기기)	939 504	91 91	1,030 595	1,271 926	76 76	1,347 1,002
變 電 (중전기기)	1,240 1,240	17 15	1,257 1,255	1,483 1,483	13 7	1,496 1,490

區 分	'92			'93		
	內 資	外 資	計	內 資	外 資	計
配 電 (중전기기)	3,655	0.5	3,655.5	2,924	1	2,925
	2,862	—	2,862	2,436	—	2,436
通 信 (중전기기)	345	3	348	282	3	285
	106	—	106	75	—	75
計 (A) (중전기기)(B)	15,463 <78.0>	4,359 <22.0>	19,822 <100%>	14,700 <77.1>	4,375 <22.9>	19,075 <100%>
	5,134 <25.9>	106 <0.5>	5,240 <26.4>	5,619 <29.5>	83 <0.4>	5,702 <29.9>
A/B	(33.2)	(2.4)	(100)	(98.5)	(1.4)	(100)

한전의 國産化製品 및 新開發製品의 購買現況 ('92~'93)

1. 國産化製品 購買實績

	發 電	送變電	配 電	計
— 總 品目數 (個)	20	6	6	32
— 金 額 (百萬元)	10,484	37,546	1,243	49,273

※ 重電機器 (送變電 및 配電)가 全體購買額의 78.7를 占有

2. 重電機器 國産化製品 購買現況

	國産化·新開發製品	한전의 購買製品	한전의 非購買製品
— 品 種	복합계전기 외 15種	屋外形GCB의 8種	복합계전기 외 6種
— 金 額	6,249百萬元	2,850百萬元	3,399百萬元

※ 非購買事由 : 民需用, 形式承認 未取得, 購買計劃 無, 外資購買計劃 確定 등으로

購買基準 및 時期가 不適切한 品目

(한전 購買品目중 一部品目은 少量만 購買)

한전의 技術開發費 支援現況

1. 分野別 支援現況

(單位：億원)

區 分	原子力		水火力		送變電		其 他		計	
	'92	'93	'92	'93	'92	'93	'92	'93	'92	'93
支援額	99	529	24	56	231	233	51	151	405	969
比率(%)	24.4	54.6	5.9	5.8	57.0	24.0	12.7	15.6	100	100

2. 種類別 支援現況

(單位：億원)

區 分	한전研究院		重電機器		에너지分野		其 他		計	
	'92	'93	'92	'93	'92	'93	'92	'93	'92	'93
支援額	166	434	169	224	5	22	65	289	405	969
比率(%)	41.0	44.8	41.7	23.1	1.2	2.3	16.1	29.8	100	100

韓 · 中 산업협력 本格化

- 5개 分科委서 협력방안 具體化 -

金喆壽 상공자원부 장관과 王忠禹 중국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은 한·중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자동차등 5개 우선협력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키로 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 산업분야의 협력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날 우선 협력분야로 선정된 5개 업종중 자동차 · 항공기 · 전자교환기 · 발전소 등 4개 분야는 우리측의 전략업종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전자는 HD(고화질)TV, 팩시밀리, 대형 컬러TV등에서 중국측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다음은 5개 우선협력분야의 분야별 현황 및 협력 전망중 전자교환기, 발전소 분야이다.

▲ 전전자 교환기 = 이 분야의 산업협력도 국내기업들로서는 기대가 큰 분야다.

중국은 통신사업 현대화 계획 추진으로 막대한 규모의 통신기기 시장이 창출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의 참여는 우리나라의 통신기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는 95년까지 총 130억달러를 투자, 통신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오는 95년 통신시장은 한국 현 수준의 2.4배에 달하는 4800만 회선에 달하고 2천년에는 1억 회선에 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양국간의 협력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전자교환기를 독자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통신기기 국산화 정책에 협력할 수 있을 뿐아니라 양국간의 기술협력으로 선진국의 기술보호장벽에도 공동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관점에서 현재 중국에 대도시형 대용량 전전자교환기 시장참여를 허용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제품에 대한 형식승인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승인된 5개 외국기업 만으로도 공급능력이 충분한 만큼 한국은 중소도시 및 농어촌형 교환기에 주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발전소 건설 = 이 분야는 양국의 이해가 상호일치해 협력이 기대되는 부분이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최대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건설등 방대한 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 자본 및 운영경험 부족으로 우리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국내 원전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방대한 원전기술시장에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막대한 소요자금을 중국측에 해결하거나 최소한 정부보증기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측은 자금조달에 뚜렷한 방안이 없는 형편이다.

貿易 技術障壁 협정 대응

- 工振廳, KS제 · 개정 단체표준등 통보대상 擴大 -

공진청은 UR협정 후속조치로 무역상 기술장벽협정 (UR/TBT)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향후 국내의 각종 규격 · 시험검사 · 인증제도의 국제화와 사전통보를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기술장벽에 대한 정보수집 · 국내 보급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는 UR타결에 따른 TBT협정의 개정에 대응, 앞으로 UR협정에 의해 신설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시험검사·인증제도·규격과 관련된 통보대상을 확대, 그동안 그 적용이 강제화되어 있지 않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의 제정·개정내용까지도 통보 대상업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43개 민간단체에서 제정·운영하는 단체표준도 통보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각종 규격·검사제도 등에 대한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키로 했다.

그간에는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사전검사제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제도의 내용 등 11개사항을 가트에 통보해 왔다.

또한 국내 각종 검사제도의 검사기준·규격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제기준에 일치시키도록 하고 환경·물류·전자재·정보 통신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화도 강화하여 국제규격을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43개 민간단체에서 제정한 612개 단체규격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으로의 일치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국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파상적인 무역상 기술장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키 위해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교역 국가와의 양자협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ISO(국제표준화 위원회)·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PASC(아·태 지역표준 기구)·APEC(아·태 지역 경제협력체)를 통한 대외 통상협력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각국으로부터 통보되는 각종 규격의 제·개정, 검사 및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내 관련업계 및 단체에 신속히 배포하는 한편 정보 입수기간을 단축하고 컴퓨터 통신망 체제 보강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의 기술장벽중 TBT협정에 위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나 협상요구, 나아가 DSB(Dispute Settlement Board)제소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한편 TBT협정은 국가간 서로 다른 강제시험검사, 인증제도, 규격 등에 따른 무역장벽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국제협정으로 이번에 UR타결로 개정, 통보대상 업무가 강제적인 제도에서 비 강제적인 규격의 제·개정 업무까지로, 통보대상 규격도 제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규격의 제·개정까지 확대됐다.

또한 지금까지 중앙정부만 통보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까지도 통보를 해야하는 등 각 회원국의 통보대상 업무가 대폭 강화됐다.

단체 隨意契約 대상품목 縮小 - 상공부, 올부터 단계적으로 대폭 조정키로 -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물량배정시 품질이 우수하거나 수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대, 조합원간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나 운영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요인이 많고 계약물량의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제도운영에 단계적으로 경쟁요소를 도입,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우선 1단계로 금년중 제품특성상 단체수의계약에 적합치 않은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량구매 품목 중심으로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대폭 조정키로 했다.

또 물량배정을 위한 각 조합별 수혜기준을 객관화·투명화하고 품질수준이 우수하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에 보다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간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95~96년 기간중에는 2단계로 각조합별 단체표준제정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업체에 한해 단체수의계약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중 대기업의 참여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중소기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3단계로 97년부터는 단체수의계약대상을 일부 필요한 품목으로 최소화하고 기타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해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를 정착시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1개 중소기업 자격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관련 기관과 협의해 대상품목 조정작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상품목이 축소되면 당장 각 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상표제 도입등 수의계약 외의 조합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에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97년부터 개방되는 외국 정부조달시장에 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1994년 상반기 국산 신기술 인정마크 대상 기술 선정

과학기술처는 1994년 상반기 「국산신기술인정마크」 대상과제로 선정된 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업체등으로 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1994년 상반기 국산신기술 인정마크 대상기술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과학기술처 공고 제 1994-19호, '94. 3. 25) 했다.

■ 1994년 상반기 국산신기술 인정마크 대상기술

1. 전기·전자분야

회 사 명	기 술 명	인정기간
1. 금성계전 (주)	· IGBT 소자를 채용한 500KW급 인버터 제어기술	3년
2. (주) 금성사	· 세탁기의 카오스이론 적용기술	2년
3. -	· WIDE SCREEN TV의 화면종횡비 변환장치	3년
4. -	· 캠코더의 자동초점, 노출, 색균형 제어방법	2년
5. -	· 칼라브라운관용 L-B대구경 전자총	3년
6. 대우전자 (주)	· 청소기의 소음 저감기술	2년
7. -	· 냉장고의 2FAN 3면 입체냉각 방식	2년
8. 대한전기 (주)	· 형광등 조광회로 DIMMING CIRCUIT FOR FLUORESCENT LAMP	2년
9. 대한전선 (주)	· 원자력 발전소용 CLASS-1E 케이블 제조기술	3년
10. 동양매직 (주)	· 세탁기에서의 세제 사용량 절감기술	2년
11. 동영전자공업 (주)	· 전해콘덴서용 알루미늄케이스의 제조방법 및 장치	3년
12. 마이크로통신 (주)	· 초소형 CATV 간선분기 증폭기 제조기술	2년
13. 모건코리아 (주)	· 밸브 및 댐퍼 자동 구동용 전용액츄에이터 개발	3년
14. 삼성전자 (주)	· VIDEO-CD 신호처리기술	3년
15. 삼성전자 (주)	· 전세계 TV 신호변환기술	2년
16. 삼성전자 (주)	· CD GRAPHIC DECODING기술	2년
17. 삼성전자 (주)	· 다중 DSP를 이용한 병렬 칼라 화상처리기술	2년
18. 삼성전자 (주)	· CD/MD용 광 PICK UP 실계기술	2년

회 사 명	기 술 명	인정기간
19. 삼성전자 (주)	· 비데오카메라 디지털 신호처리기술	2년
20. 삼성전자 (주)	· FULL DIGITAL AC SOFTWARE SERVO DRIVE기술	2년
21. 삼성전자 (주)	· 유압베어링을 적용한 8mm 초소형 VIDEO DECK MECHANISM	2년
22. 삼성전자 (주)	· FAX 고화질 화상처리기술 및 전용 PROCESSOR	2년
23. 삼성전자 (주)	· 박막트랜지스터를 이용한 ACTIV방식 LCD장치 제조방법	3년
24. (주) 우주정밀	· 주유소 POS시스템의 주유기 계측제어 INTERFACE 및 통신기술	2년
25. 이화전기공업 (주)	· 1250KW급 UPS 제조기술	3년
26. (주) 정엔지니어링	· 전자력을 이용한 관수로 유량 측정기술	3년
27. (주) 진흥전자	· 건전기 구동 전자감응식 자동급수 밸브	3년
28. 프로컴시스템	· 전력계통의 과도 및 고장진단기술	2년

2. 금속·비금속 분야

회 사 명	기 술 명	인정기간
1. 금성전선 (주)	· ELECTRON BEAM 조사가교형 고전압 LEAD 전선	3년
2. 금성전선 (주)	· VCR HEAD DRUM용 AL합금 주조기술	3년
3. 대한중석 (주)	· 전자부품용 레늄-텅스텐 / 토륨-텅스텐 합금선 제조기술	3년
4. 일진다이아몬드공업사	· 대형 초고압금형을 이용한 합성다이아몬드 제조기술	3년
5. (주) 주문열처리	· 냉간단조 및 프레스 금형의 탄화바나듐 코팅기술	3년
6. 한국쇼트기계 (주)	· 일반 소형강구의 성형방법	3년

3. 기타분야 : (생략)

▣ 의견제출

- 상기 국산신기술인정마크 대상과제로 선정된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련기업 등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1994. 4. 25.) 이내에 그 의견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참조 : 진흥부장, 전화 : 02-780-76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工場용지 확인서 發給제도 도입 - 상공부, 4월부터 市長 · 郡守가 10일내 발급 -

해당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 · 군수가 확인해주는 공장용지 확인서 발급제도가 도입된다.

상공자원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민원인들이 수많은 법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소정양식의 신청서만 제출하면 해당지역 시장 · 군수가 10일 이내에 공장을 지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공장용지 확인서 발급제도를 도입,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인이 공장을 지으려는 토지의 지목과 수계보전지역, 군사보호지역, 자연보호지역, 준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등 86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각종 토지관련 용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확인서 만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해당토지의 용도를 일일이 관계법에 따라 확인할 경우 길게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개정시행령은 또 해당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확인서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이유와 조치방안을 명기해 주도록 해 민원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關稅還給期間 1~3일로 단축 - 財務部, 절차간소화 ... 5~6월 시행계획 -

정부는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온 수출기업들이 關稅還給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수출품에 대한 보수(A/S)를 위해 保稅區域에 반입돼 장기간 보관되는 부품류등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입고즉시 관세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財務部에 따르면 현재 수출업체가 수출면허를 받은 후 관세를 환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3~9일(개별환급의 경우)이 걸려 업계에 자금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재무부는 환급소요기간을 1~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아래 환급절차 개선작업을 關稅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는 5~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환급기간 단축을 위해 관세환급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물품의 선적확인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관세환급시 제출서류는 환급신청서(업체별로 갑·을·병 3종), 원자재분류 코드집, 원자재 수입면장·수출면장, 소요량 계산서, 수출물품조건표 등 무려 8가지이며 이중 3~5가지를 없앨 계획이다.

또 수출품의 선적확인인 ▲수출면장에 세관장 날인 ▲선장수령증(MR) 제출 ▲외국환은행장 확인(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 부분) ▲선하증권 부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반입 확인서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소요기간이 2~5일씩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적확인제를 아예 생략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個別환급업체의 환급절차를 이같이 개선하는 한편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를 적극 확대해 수출면장만으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 보수용품이 장기보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출(선적)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입 즉시 관세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품 AS용품에 대해 관세를 조기환급해 준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수출품이 국내로 재반입될 때 관세를 매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장 10년까지 장기보관함으로써 관세환급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 제3차사업 안내

- 과학기술처는 '93년에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노하우 등 산업재산권 및 연구개발 성과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허하는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 '94년도에는 본 사업을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하여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 제3차 사업”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동 사업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은 아래 공고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게 정부출연기관과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한시적으로('93~'95) 무상양허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함.

나. 사업 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정부출연기관,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양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인력훈련, 기업진단, 기술향상, 기술지도 실시 등

2.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가. 기술료 특전

- 정부출연기관, 대학,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술료 면제

나. 자금 지원

- 기술지원 사업비 지원
 - 기술 보유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은 정부에서 50% 부담 (50%는 기업부담)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개발자금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으로 융자 지원토록 추천
 - 시설운전자금은 상공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융자지원될 수 있도록 추천
 - 융자지원 결정은 융자기관의 별도 심사기준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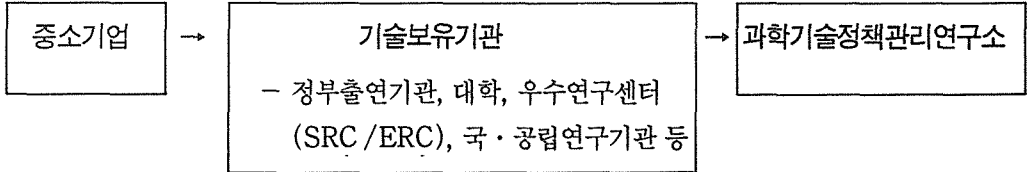
3. 신청 방법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나.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관리지원실 (968-4292, 2895)

다. 신청기간 : 1994. 4. 1 ~ 4. 15

라. 신청절차



4. 기타 참고사항

- 과제심의 및 통보 : 접수된 과제는 전문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결과를 해당 주관기관(기술 보유기관) 및 기업체에 통보
- 사업안내 및 문의처
 - 종합적인 사항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 (Tel. 503-7627~8)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관리지원실 (Tel. 968-4292, 2895)
 - 구체적인 기술사항 : 해당기술 보유기관 (사업책임자 연락처는 안내책자 참조)
 - 용자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자금 용자」 : 한국종합기술금융(주) 개발 금융부(Tel. 872-7600)
 - 「시설·운전자금 용자」 : 각 시도 지역 경제국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개발지원팀 (Tel. 769-6796)
- 신청양식 및 대상과제 목록
 -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및 각 기술보유기관에 비치된 사업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람
- 사업설명회 안내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수도권 지역	'94. 4. 6 (수)	10:30 ~ 12:00	○서울상공회의소
중부 지역	'94. 4. 1 (금)	14:00 ~ 16:00	○대전상공회의소
호남 지역	'94. 4. 8 (금)	16:00 ~ 18:00	○광주상공회의소
영남 지역	'94. 4. 8 (금)	14:00 ~ 16:00	○부산상공회의소

※ 사업설명회시 사업안내 책자를 배포할 예정임.

1994년도 「품질경영 100선」 선발요령 안내

1. 목 적

매년 품질경영 추진성과가 가장 우수한 100개 기업을 선정, 「품질경영 100선」으로 공표하여 자율적 경쟁촉진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품질경영운동을 빠른 시일내에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함

2. 선정절차

선발계획 공고	2월
신청 및 추천접수	5월
서 류 심 사	6월
현 지 심 사	7~8월
「품질경영 100선」공표	9월
「품질경영 100선」집 발간	10~11월

3. 신청(추천) 요령

가. 신청(추천) 대상 : 전산업체

나. 신청(추천) 기한 : 5월말

다. 신청(추천) 단위

○대 기 업 : 사업부 단위

○중소기업 : 회사 단위

라. 신청방법

(1) 신청희망업체가 직접 신청

(2) 각 추진본부 및 유관기관에서 소속업체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천

•추천기관

- 국립공업기술원 및 각 지방공업기술원
- 15개 시·도
- 한국표준협회 본부 및 각 지부
- 그룹별, 산업별, 중소기업 조합별, 모기업별 품질경영 추진본부
- 5개 공업단지 관리공단
- 대한품질경영학회
- 한국품질관리기사회
- 전기용품 안전관리 협회
- 지역상공회의소
- 기타 유관단체

•기관별 추천업체수 : 제한없음

마. 신청서류

(1) 신청서 또는 추천서 : 1부

(2) 품질경영혁신 사례개요 : 5부

- 회사개요 (A4 1~2매)
- 혁신활동 추진사례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A4 10매 이내로 작성)
- 추진성과 (선발기준의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원칙적으로 계량화)

바. 접수처 : 공업진흥청 품질관리과 (☎ 02-503-7950-59, 교환 : 238, 239)

4. 최종 선정

가. 선정업체수 : 100개 기업

나. 선정방법

- 전년도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부문상(IE, VE, PM 등) 수상업체는 신청 또는 심사 절차없이 우선 선정함
-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내용을 종합검토 후 선정함
 - 품질경영 100선 선정위원회
 - 위원장 : 공업진흥청 차장
 - 위 원 : 산업별 추진본부 대표등 13개 기관 대표
 - 간 사 : 품질관리과장